

<서면질의·답변서>

○ 김주삼 위원

(질 의)

○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2천만에 달하는 수도권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관리에 수고하시는 이춘배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98년 12월 개통예정인 팔당호를 관통하는 양수대교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입니다. 한강환경관리청 조사에 의하면 하루 2만여대 이상의 일반차량과 30여대 이상의 대형유해물질차량(유조차, 화학차 등)이 통과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된 용담대교의 차량통행량에 비추어, 양수대교가 개통된다면 차량통행량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총길이 5,520m에 달하는 양수대교 2,180m, 4차선)와 용담대교(2,340m, 2차선)를 운행하는 차량은 10월 13일, 14일 양일간기준 하루평균 18,4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류차량 등 유해물질차량의 경우 하루평균 30여대에 이르며 이는 양수대교의 개통 이전인 지난 달 10월 13, 14일의 조사량으로, 양수대교가 개통되는 12월 이후에는 차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루평균 2만여대에 이르는 차량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가스 등과 겨울철 제설, 제빙용 염화칼슘 등이 녹아서 팔당호에 유입될 경우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과 수천억원의 팔당호수질보호를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팔당호를 관통하는 국도의 안전사고대책은 전무하여 팔당상수원보호정책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6번국도의 팔당호구간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화물차, 경유차 등의 통행을 제한하고 차량에 통행세를 부과하여 차량통행을 줄이는 한편 수입금은 팔당호관리기금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12월 양수대교 개통이전에 최소한 유류·유해물질차량 등 화물차의 우회를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우회의 경우 기존의 양수교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마저 철저한 안전운행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는 무인감시카메라의 집중설치 및 단속원을 배치하여 철저한 저속운행으로 추락사고나 추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합니다.

또한 운행차량으로부터의 쓰레기투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망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겨울철 제설, 제빙작업시 염화칼슘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모래 등을 사용토록하여 염화칼슘 등이 녹아서 팔당상수원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경기도 및 중앙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팔당호를 관통하는 양수대교, 요농담대교가 금년 12월 중 개통예정인 바 차량증가 및 과속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가 우려되어 대비코자 금년에 2회에 걸쳐 1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팔당호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방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를 통해 사고시 조기발견 체계 보완, 방제장비 신속투입, 사고취약지역에 대한 교통안정 표지 보강, 과속차량 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 및 단속강화,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보완, 유류 및 유독물 차량 우회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과 협의·추진 중에 있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방제훈련을 용담대교 상에서 금년 12월 중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